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3, 페르시아 제국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3,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으로 알려진 민족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구약성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집트인에 대해 모두 알고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종의 먼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적으로도 거리가 멀다. 페르시아인은 중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머물렀던 인도-아리아인 그룹의 일부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메디아인과 바사인이 언급되는 책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서는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을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순으로 보면 메대인이 페르시아인보다 앞선다. 따라서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메디아 왕국은 정말 상당히 컸으며 당시의 다른 많은 왕국과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유적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수들은 말을 사랑했고 말은 실제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여 정착하고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들은 기원전 836년경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몰락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 이벤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지역에 정착한 미디어 부족과 기타 인도-아리아 민족은 실제로 키악사레스(Cyaxares)라는 이름의 동료에 의해 통합되었습니다. 자, 이 이름들은 모두 일종의 그리스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로 그리스 자료에서 우리를 위해 보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물론 이것과 조금 다르게 발음됩니다.

그러나 Cyaxares는 그의 통치하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 관한 한 Medes 역사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바벨론과 맞먹는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리적 영역에 관한 한 미디어 제국이 실제로 바빌로니아 제국보다 꽤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주요 인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불모의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제국 아래서 함께 연합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아래 연합된 민족들 중 하나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인은 미디어인과 마찬가지로 인도-아리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처럼 그들은 원래 말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하여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정복되어 미디어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문화적으로 미디어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어는 미디어의 언어와 다소 다르며, 문자 체계도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건축에 관한 한, 문화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550년까지 미디어의 봉신이었습니다.

550년에 이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올 또 다른 동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키루스 대왕(Cyrus the Great)으로 알고 있는 키루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이러스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시대 직후에 살았던 헤로도토스, 크테시아스, 크세노폰도 모두 그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키루스와 그의 업적, 그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희귀한 원주민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념비적인 비문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Behistun 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Behistun 비문 이라고 부릅니다. 베 히스 툰 비문은 키루스의 직계 후계자가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두 왕의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만든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키루스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키루스와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키루스와 친척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다리우스는 자신과 키루스가 사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비문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문자를 처음 해독한 고고학자조차도 문자를 복사하는 동안 밧줄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문의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페르시아 왕, 열국의 왕,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아르사메스의 손자, 아케메네스 왕 다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Achaemenid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그가 Cyrus 대왕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Cyrus는 Cyrus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Achaemenid라고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사이러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였나요?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아케메네스는 아케메네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대부분은 아케메네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케메네스 제국, 혹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키루스는 실제로 그 왕조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리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그가 그랬다고 주장했으며 아마도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560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투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자신의 소유물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업적과 메디아 제국 주변의 일부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메디아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스티아게스 왕은 키루스 같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망과 능력이 뛰어난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 편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styages는 Cyrus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고, 그것이 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썄, 그는 틀렸다.

왜냐하면 기원전 555년에 키루스가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를 쫓아내고 그를 제국의 통치권에서 빼앗아 메디아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레스의 장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썄, 그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550년에 정복이 완료되자 키루스가 황제가 되었고,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부하 왕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주요 운영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준비할 수 있을 때마다 지역 통치자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그들을 대체하거나 분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충성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547년에 그가 리디아를 정복했을 때 그는 관용 정책과 가능한 한 적은 변화를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일치시키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세금과 공물을 내야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제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페르시아 치하의 생활이 어떤 급격한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바벨론으로 관심을 돌리기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되고 확장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고레스가 이 여러 왕국과 나라들과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두루 다니며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을 내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이러스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키루스는 선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은 사자들을 통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그곳에 올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들의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러스의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하기 전에 꽤 두드러졌던 것이 아마도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이란의 다신교였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키루스가 이곳에 나오는 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는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의 동료였던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보니두스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야심 차고 유능한 왕이 있는데, 나보니두스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휴가를 간다.

우리는 키루스가 실제로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나보니두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그에게 화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그가 종교개혁자였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주요 신은 마르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도달할 때쯤이면 Marmaduke와 혼동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그것은 만화에 나오는 큰 개입니다. 그러나 Marduk은 폭풍의 신이었으며, 키루스 시대에는 대부분의 바빌로니아 종교 문헌에서 Marduk을 모든 신의 전형으로 식별했습니다.

이 시대의 일부 텍스트를 읽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Marduk을 다른 모든 그리스 바빌로니아 신들의 전형으로 향한 그들의 헌신은 거의 경계에 가깝고 거의 일신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전통적으로 바빌로니아 민족의 신이었던 마르둑(Marduk) 신에게 헌신하는 대신 달의 여신 신(Sin)을 숭배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그는 Marduk 사원의 권리를 박탈하기 시작하고 달 여신 사원에 돈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었지만 Marduk을 사랑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나라에서 불교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미국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불교도들에게 온갖 종류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빌론에서 나보니두스가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신이 무시되고, 사람들의 종교가 나보니두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본질적으로 위대한 해방자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보니두스의 무능과 배교로부터 바벨론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론 그 말이 유다에도 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위대한 구원자가 될 고레스에 관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도. 그러나 키루스는 꿈을 꾸었고 그의 텍스트 중 하나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둑 신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와서 이 사악한 사기꾼 나보니두스에게서 내 백성을 구출해 주십시오. 오셔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저, 마르둑을 제 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기원전 539년 10월 29일에 키루스는 바빌론으로 진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기록에서는 그가 강의 방향을 바꾸었고 강의 방향을 바꾸어 바빌론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이 너무 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꽤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발굴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바빌론 성문 아래로 흘러 도시를 통과하는 강은 실제로 약 12피트 깊이였을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로 강을 건너서 물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내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Marduk의 사제들이 문을 열고 그냥 열어두는 것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우리가 문 잠그는 걸 잊었나요? 와,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바빌론은 피를 흘리는 일 없이 함락되었고 키루스를 다시 그들의 해방자로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원통이라 불리는 문서인데 발견되어 해독되었으며 그의 말솜은 바벨론 사람들이 기록하였다. 그는 나는 키루스, 지구의 왕, 위대한 왕, 강력한 왕, 바빌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 땅의 왕, 땅의 4분의 1의 왕, 땅의 4분의 1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캄비세스, 대왕, 안산 왕, 키루스의 손자, 대왕, 안산 왕, 테스피스의 후손, 대왕, 안산 왕, 끝없는 왕가의 자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Achaemenes에 대해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마르둑(Marduk) 신인 벨(Bel)과 또 다른 전통적인 바빌로니아 신인 나부(Nabu)는 누구의 통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과 즐거움을 위해 왕권을 갈망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나는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통치자의 왕궁에 정부의 자리를 세웠는데, 아마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위대한 신 마르둑은 관대한 바빌론 주민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나의 수많은 군사와 많은 무리가 평화롭게 바벨론에 들어가 바벨론 가운데서

평안히 왕래할 때에 나는 날마다 그에게 경배하기를 힘썼노라. 나는 누구도 수메르와 아카드 땅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사이러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군인들이 원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신들의 친구,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물론 사람들도 종종 따랐습니다.

신들의 뜻을 거스려 노예가 된 바빌론 주민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반하는 코르베를 폐지하였다. 나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나는 그들의 황폐한 집에 안도감을 주어 그들의 불행과 노예 생활을 종식시켰습니다.

위대한 주 마르둑은 내가 한 일을 매우 기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왕 고레스와 내 아들 캄비세스와 내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기쁜 마음으로 평화롭게 서서 그분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러스가 자신과 자신의 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키루스는 자신의 제국을 거의 모든 고대 근동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소아시아, 터키를 거쳐 이스라엘 땅까지, 기본적으로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제에 대한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 많은 것은 그가 원주민 숭배와 원주민의 은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건축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예루살렘의 초기 재건에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문화적 관용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금 신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고대 세계에서는 드물었지만 키루스는 관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했듯이, 그는 자신이 신들의 친구임을 드러냈습니다.

사이러스는 훌륭한 조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의 힘으로 자신의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구조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다른 왕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530년에 스키타이인이라는 집단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믿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매우 호전적이었고 제국의 북쪽 국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북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의 무덤은 실제로 자신이 성취한 것만큼 성취한 사람에게는 매우 단순하고 장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위대하고 인상적인 기념물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 여기 키루스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간단한 비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 작은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다소 작고 겸손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위대한 사람에게 딱 맞고 단순한 헌사입니다. 그러면 키루스는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야 45장에서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희 손을 잡았으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성공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레스가 야훼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정책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원래 물결은 아마도 꽤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다 땅, 특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왜 안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상한 종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세스 바자르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세스 바자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영광의 날이 곧 회복될 것이며 다윗 왕조가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인식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hesh Bazar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의 통치 기간에 완성되지 않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키루스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국가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유대 민족이 다시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희망과 미래를 가진 민족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많은 부분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성벽과 많은 건물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부자들과 부자들과 유력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교외 지역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군대의 약탈 등을 피해 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변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 집과 이전에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했던 땅과 장소에 정착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 집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긴장과 사회적 격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지혜로운 자, 선한 자, 관찰력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그 땅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일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여기 바빌론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문화에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대열에 합류하고 지원을 위해 서로를 바라 보는지에 대해 이미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 땅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어는 교육받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언어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급 계층 사이에서 히브리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이런 종류의 이상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상류층 이고 누가 하류층인지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아닌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결국 학자의 언어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꽤 오랫동안 살아있는 언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당시 시장에서 히브리어가 여전히 구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발삼 향아리나 이런 종류의 물건에 이중 언어로 새겨진 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계속되었지만 히브리어 자체는 일종의 저속한 히브리어인 일반 사람들의 언어와 학자들의 언어 사이에 분기점을 가졌으며 결국 우리가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레스 시대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한동안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키루스 시대 이후 우리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와 거의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비세스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통치했지만 키루스는 그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곳의 키루스 원통에서 그의 총애받는 아들로 지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러스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캄비세스는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 선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에 따르면 그에게는 경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Cambyses에 의해 살해된 Bardia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Cambyses는 Smerdis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기록에 따르면 이 스메르디스는 유사-스메르디스(Pseudo-Smerdis)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연히 캄비세스의 형제와 똑같이 생긴 스메르디스 라는 이름의 친구인 캄비세스의 형제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인 스메르디스(Smerdis)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ambyses의 형제인 Bardia입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합니다. 글썄, Cambyses는 이집트를 페르시아 영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25년에 그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로 선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키루스와는 달리 캄비세스는 특히 이집트 종교에 대해 편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Apis Bull이라는 황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pis Bull,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피스 황소(Apis Bull)를 태양신 라(Ra) 신의 화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죽을 때 마다 그들은 황소를 방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태양신의 새로운 화신이 될 것입니다. 글썄요,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스스로 이 황소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뿐입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이 바르디아나 스메르디스 또는 그가 누구이든 그는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당한 왕인 왕임을 선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캄비세스의 형제와 눈에 띄게 닮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음, 이집트에 있는 캄비세스는 그것에 대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Bardiya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심을 사나요? 글썄, 그는 즉시 세금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뭔지 맞춰봐? 나는 이제 왕이다.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글썄요.

그래서 갑자기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글쎄, Cambyses는 그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를 향해 서둘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페르시아로 가는 도중에 사망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형을 살해한 죄목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여 그가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Bardiya가 실제로 그의 형제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관한 모든 종류의 미스터리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가 아피스 황소를 찔렀던 바로 그 자리에 그의 칼이 그를 찔렀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신이 정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가 죽은 것은 신의 보복이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에 자신을 캄비세스의 형제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동료들 중 좋아하지 않는 페르시아 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다리우스 대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거짓 왕인 바르디아, 가짜 형제를 몇몇 고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폐위시켜야 했는지 알려줍니다.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방식은 놀라운 이야기이며, 베히스툰 비문 역시 우리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르디아에 대항하여 일곱 명의 위대한 귀족 왕자들을 연합시켰고 그들은 바르디아를 폐위시키고 그들 중에서 왕권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기로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이 키루스 대왕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그에게 새로운 왕이라는 실질적인 신뢰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방식은 실제로 그의 혈통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일단 우리가 일곱 왕자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세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일곱 명의 귀족 왕자들은 누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구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의 주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황제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이 정말로 말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성의 확장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나 어쨌든 다리우스의 말은 신랑의 매우 영리한 계략에 의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과 그들이 정복한 많은 영토는 이에 대해 냉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세금 면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즉시 일련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또한 소아시아의 여러 그리스 식민지가 현재 독립을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인의 힘으로 그들을 쳐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왕국에 또 다른 추가 사항인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는 그리스 민족의 영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도 이러한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무를 완수할 때쯤 다리우스는 막강하고 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중 일부는 베히스툰(Behistun)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 역사가들조차 다리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출처에서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한 일 중 하나는 화폐를 표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데릭이라는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세요.

글쎄요, 그가 그걸 발명했는데 왜 안되죠?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단 하나의 주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방하게 될 꽤 놀라운 종류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제국을 우리가 총독이라고 부르는 20개 구역, 즉 지역이나 행정 구역이라고 부르는 구역으로 재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 각각 위에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그 영역,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고, 자신의 언어를 말하고, 자신의 문화를 아는 사람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이 satraps의 머리, satraps는 물론 왕에게 직접보고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우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우스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채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쎄요, 다리우스는 작가들을 이용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로써 메시지는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국의 한 부분에서 가장 먼 곳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이것은 곧 전신으로 대체되어 미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포니 익스프레스(Pony Express)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니 익스프레스는 말 그대로 다리우스의 우편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작가들이 사용한 모토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우편 시스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면 비나 눈, 밤의 어둠도 이 배달원들을 지정된 순찰에서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금과 은의 가치 비율을 정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주화, 금과 은 가치의 표준화 고정, 이 모든 것들은 제국을 매우 확고한 재정적 기반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법률 코드를 성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다리우스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 개의 다른 인종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들만의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만의 법과 관습을 갖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법률과 관습이 성문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표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유대인을 좋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세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요, 그냥 토요일이에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우스는 유대인의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는 그 모든 법률이 성문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표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걸쳐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 때문에 유대인의 법은 훨씬 더 동질적인 일련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에 유대인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법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한 민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도 있었고, 다른 많은 민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몇 가지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웃을 죽이려 가지 마세요.

이웃 커뮤니티나 그와 유사한 것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키루스처럼 그도 많은 궁전과 신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는 일종의 수상한 상황에서 왕위를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웠고 그의 업적은 앞으로 나올 많은 황제들에 의해 실제로 모방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행한 일 중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매우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과 스룹바벨의 임재에 대해 흥분한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문맥에 관계없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전부 읽어보세요. 이 말은 스룹바벨에게 한 말입니다. 이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스룹바벨아, 네 앞에는 험난한 길이 있다고 하신다. 내가 그 길을 평지로 만들 것이다. 이제 그 시기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면 스룹바벨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왔던 세스바자르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는 단지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리우스의 후원으로 창립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것을 완성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미스터리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완공된 때는 다리우스 시대였으며 기원전 515년이었습니다. 그는 표준화의 전체 과정의 일부로 유대법의 표준화를 장려했습니다. 경전의 정경화를 장려한 것은 그의 활동과 정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스라가 최초의 성경과 같은 것을 창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에스라는 확실히 다리우스 왕 시대에 시작된 과정의 수혜자입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유대인이 퍼지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랬나요? 글썄요, 단순히 안전하게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가는 것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안전했습니다. 다리우스 제국 전역의 어느 곳이든 여행은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모두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출신 국가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염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일부였던 것에 대한 일종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자 가장 큰 에피소드 중 하나는 동서양의 첫 번째 충돌인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기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안을 따라 수많은 작은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 식민지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에 세운 식민지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큰 오렌지색을 보면 그 모든 작은 그리스 식민지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매우 민족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그리스인이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민족 중심적이었지만 그리스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오른쪽? 어쨌든, 페르시아 전쟁은 실제로 밀레토스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바로 여기 아래에서 보기가 조금 힘들지만 저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밀레토스는 기원전 500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인들은 반란을 진압했고, 그것이 그리스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야만인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무자비함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영역을 그리스 땅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원전 492년에 그는 그리스로 함대를 보냈고 여기 있는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립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한동안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그 물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인들은 이 물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배 중 많은 것을 바위에 박살내어 잃었습니다. 투쟁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은 실제로 그리스 본토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한 주자가 승리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자 그는 즉시 죽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는 26마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26마일 경주의 이름이 붙여졌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487년에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내려가야 하고, 오히려 페르시아인들이 내려가서 이집트인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리스인들과의 전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 전쟁의 첫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기원전 486년, 다리우스는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꽤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가 독살되었거나 그와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강했고, 오랜 역사 동안 수익성이 좋았으며, 질서 있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후계자들 중 일부가 무능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작은 그리스 군대가 훨씬 더 큰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일부는 과장된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 군인들에 비해 수적으로 10대 1로 열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군대가 종종 훨씬 더 큰 페르시아 군대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은 일반적으로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상당히 중무장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름다운 방패와 장검, 그리고 멋진 장창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그리스인들이 매우 잘 훈련되고 전투에 단련된 베테랑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인들은 항상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서로보다 가장 싫어하는 유일한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둘 다 Thebans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거기선 모두가 서로를 미워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전투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실제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에서 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글썄, 페르시아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좀 여유로웠어요.

사실, 그들의 군대의 대부분은 징집병, 즉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 그리스의 우월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그리스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돈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동기, 다양한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술을 사용하여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 중 하나는 팔랑크스의 사용인데 이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전투였습니다. 기술. 그리스인들은 피할 수 있었고 종종 훨씬 더 큰 군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가 죽은 후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영화 "300"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묘사 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Xerxes에 대한 좋은 사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진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우스와 키루스 대왕의 딸인 아토사라는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보다 왕좌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Xerxes가 그의 할아버지 Cyrus나 그의 아버지 Darius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길에는 훨씬 더 무자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주요 신인 벨, 즉 마르둑의 신상을 빼앗아 녹였습니다. 바벨론 백성을 완전히 모욕하는 방법으로 슬래그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세요, 키루스 대왕은 마르둑이 어떻게 그를 부르고 그의 손을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여기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조각상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 즉 480년부터 479년까지 그리스를 처음 침공했습니다.

그는 테르모필레 고개(Thermopylae Pass)의 멋진 전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낭만적이고 이상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는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군대가 내륙으로 행진하여 아테네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이 사악한 페르시아인들이 자기 백성에게 가할 모든 끔찍한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국민을 대피시키고 있을 때,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그들을 테르모필레 고개로 향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아테네인들이 도시에서 대피할 때까지 며칠 동안 그들을 막았습니다. 스파르타인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리스인에 따르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인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대재앙을 일으켰으며 모든 대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그리스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을 약간의 소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고고학의 좋은 용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아테네를 불태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이 무자비한 파괴를 당했다는 것은 일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Marduk의 우상들과 그들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한 번 철수해야 했습니다. 살라미스에서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선박보다 작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선박은 매우 크고 기동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함대를 수심이 얇고 항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에게 일종의 집게발을 단았습니다. 그들의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 또다시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중 하나는 이 해전의 몇 안 되는 영웅 중 한 명이 페르시아 선박 중 하나의 여성 사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나의 여자들은 남자가 되었고 나의 남자들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크세르크세스는 동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가 그들의 신상을 녹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아시다시피 Plataea나 그 어떤 것에 관한 큰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화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그것에 그다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투는 일종의 흐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플라타이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학살한 것은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에 대한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협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크세르크세스의 또 다른 예, 나는 그것을 그의 경건함의 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이바(daiva) 비문입니다. 다이바(Daiva)는 인도-아리아어,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는 아마도 신이라는 뜻의 데우스(deus)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한 영을 가리킨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인들에게 다이바는 악마였습니다.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시대에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대부분 매우 관용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그러한 한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쓴 놀라운 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들 중에 반역을 일삼던 나라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위대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나를 도왔습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나는 그 나라를 쳐서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 중에는 예전에 악마인 다이바 (daiva)를 숭배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그 악마의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악마들이 경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와, 종교 간섭이군요, 그렇죠? 이전에 악마들이 숭배되던 곳에서 나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해낸 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hura Mazda는 내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의 관용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을 숭배하며 그들은 다른 나라의 주요 신을 아후라 마즈다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꽤 잘 지냈는데, 그것은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에서 그들이 악마로 여겼던 존재들은 그 영혼들의 숭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Xerxes가 성취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를 황제로 등극시킨 일곱 명의 귀족 중 한 명인 오타네스의 딸인 아메스트리스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아메스트리스는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역사의 위대한 말괄량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많은 성취 중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일은 당시 그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어머니를 절단하고 코와 가슴을 자르고 그냥 완전히 절단하게 한 다음 부끄럽게도 남편에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그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리고 단순히 다른 귀족 가문들에 대한 그녀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페르시아에서는 귀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녀의 생애가 끝날 무렵 그녀의 영혼을 사후 세계에 보존하기 위해 고귀한 젊은이들을 땅에 거꾸로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자, 그것은 조로아스터교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그리스의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당신이 건드리고 싶은 종류의 여자가 아니라 매우 무서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또 다른 일은 페르세폴리스에 만국의 문과 100개의 기둥으로 된 홀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고대 세계의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크세르크세스는 그 도시를 그토록 화려하게 만든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가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아파다나, 다리우스의 궁전, 금고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의 궁전보다 두 배나 큰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65년에 당시 궁정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였던 왕실 경호대장이었던 아르타바누스라는 동료에 의해 왕실 환관의 도움을 받아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페르시아에서 주제가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왕실 환관들의 역할입니다.

왜냐면 이 놈들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고 위험하고, 잃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물론 크세르크세스에 관해 특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역사와 역사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도했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는 여러 역사가들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유대인 에스더가 아니라 아메스트리스라는 이름의 불쾌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한 영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에스더를 역사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비유로 간주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기원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는데, 실제로는 꽤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Xerxes와 Amestris의 아들이며 Xerxes가 암살되었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 정복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리스에 반기를 들고 있는 여러 작은 왕국과 왕국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이건 현대 정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아, 그건 우리가 아니었어,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련도 없었어, 알지? 그리고 이 창은 왜 측면에 인쇄된 페르세폴리스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 통치에 저항하도록 장려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449년에 아테네 및 아르고스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당신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 국가의 종교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악마로 여겼던 다이바를 숭배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꽤 잘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화를 위한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행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에게 일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유다로 갔는데, 물론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에스라는 본질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백성이 울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몰랐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책장에 놓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만이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글썄,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주장 중 일부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물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이웃, 당시 유다, 또는 페르시아 시대에 알려진 예훗(예후드)이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일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시대 이후에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단계라고 불리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행정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적 단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종의 강화되고 확장된 미술품, 문학 및 기타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건축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은 많지 않습니다. 다리우스 2세는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일 때 그가 스파르타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테르모필레 고개 전투 이후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404년부터 358년까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는 많은 사원을 건설하고 그의 제국 주변의 여러 곳이 신들의 집을 재건하고 영광을 받도록 돕는 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부패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조금 암시했을 수도 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실제로 공격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 시점에서 다리우스와 그 이전의 키루스가 이룩한 업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훌륭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사람들은, 제가 대학원 교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상화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면, 그들은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황제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은 매우 무능했고 제국과 제국의 자원을 잘못 관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기원전 558년~338년)는 형제들을 암살하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 8명은 이복 형제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그가 왕좌를 확보한 방법입니다.

그는 이집트를 재정복하는데 성공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바고아스라는 사람에 의해 독살되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바고아스 사람은 궁정의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내시는 페르시아 정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시에 대해 조금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내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끔찍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둘 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할 때 조공의 일부가 환관이 될 어린 소년들이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하인으로 봉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거세된 남성. 왕조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책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고자라면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산을 이어갈 아이들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야심적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많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중 한 명은 하렘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책임도 있습니다.

흔히 내시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시였나요, 아니었나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하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내시는 종종 반항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지닌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고아스는 분명히 가장 교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암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가 왕을 만드는 자이자 왕을 빼앗는 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재위 338~336년)는 이곳에서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고아스에 의해 살해당했고 우리는 이 사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고아스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다리우스는 바고아스에게 자신의 목숨을 꿰도록 강요했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자살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죽일지 선택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Bagoas는 자살했고, 그래서 그는 그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었고 그의 통치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방식으로만 주목할 만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여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에서 페르시아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승자는 그리스인, 로마인, 서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메디아인이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인이 있었으며, 그 지역 주변에는 여전히 다른 인도-아리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2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실제로 세계 강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파르티아 제국은 실제로 기원전 24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대로부터 100년은 아니고 대략 10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242년까지 지속되었다.

오랜만이네요. 로마인들은 끊임없이 파르티아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파르니(Parni)라고 불리는 이란 부족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은 페르시아인과 관련된 메디아인과 관련된 인도-아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chaemenid 제국을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정했고 본질적으로 Achaemenids를 따라 그들의 통치를 패튼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중동 전체를 거의 정복할 수 있었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의 동료 시대를 포함하여 유대인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산 왕조. 며칠이 지나 파르티아 제국이 붕괴된 후 사산 왕조라고 불리는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스스로를 제2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렀거나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이 실제로 페르시아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사산조 제국은 실제로 무슬림이 정복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산조 제국에는 놀라운 문화의 형광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인 이란으로 알려진 이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사산 왕조 시대에 절대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놀라운 주고받기가 있었습니다. 사산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은 모두 자의식적으로 조로아스터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로아스터교 종교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조로아스터교인들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들이 책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로 인해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저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건한 이슬람교가 아닌 급진적인 이슬람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유일신교, 특히 세레자 요한을 숭배하고 세레자 요한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기독교도, 기타 작은 종파들과 같은 성서의 종교들이 용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계시가 부족했지만 구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코란을 배우고 선지자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로아스터교인들은 성서의 사람들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급진적인 이슬람 국가들의 손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로아스터교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은 번성했고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인되면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지적 추구를 탐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융합과 성장을 위한 이런 종류의 기회가 사산조의 우산과 보호 아래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국.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페르시아 문화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것이 앞으로 유대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션 3, 페르시아 제국입니다.